

복식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연구

The Study of Minimalism in Costume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권기영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Gi-Young Kw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
| II. 미니멀리즘의 개념과
예술사적 의의 |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meaning of Minimalism and the characteristics in modern fashion design. The Minimalism appeared in 1960's has affect on fashion design which are simple miniskirt or Courage look of those days.

It leads a fashion system to the simple style goes with the life style of modern persons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are somewhat different the styles in 1960's with those of 1990's. Minimal style is not just simple style but abbreviate expression constrained at the minimum.

The styles appeared to be an undecorated simple line which are a sleeveless onepiece, a simple suit with no pocket and no collar and narrow shoulder. Colors are monochrome coordination and pursue a simplicity which is monotone variation. Patterns also appeared to be a geometric or abstract pattern for example check and stripe, which intend to minimum expression. Matirials are hightech glossy coating textures which have a futuristic image.

In conclusion, the Minimalism in 1990's appeared to be a post-minimalism associated with postmodernism and a hightech-minimal under the technology development.

주제어(Key Words): 미니멀리즘(minimalism), 단순성(simplicity), 후기 미니멀(post-minimal)

I. 서론

현대사회는 매스미디어와 교통의 발달, 그리고 급격한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기말이면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감, 기대, 희망 등이 뒤섞여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낙관과 비관이 어우러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복잡한 사회구조와 불안감으로 현대인들에게는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심리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호와 옛것에 대한 향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며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

현대사회의 이러한 양상은 1960년대 말부터 나타난 미니멀리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세계미술계 뿐 만 아니라 음악, 산업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패션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음악에서는 간명한 주제의 반복을 통하여 최면 내지는 환상의 세계로 몰입시키는 미니멀 음악이 등장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산물로서 제도권 예술로서의 모더니즘 음악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이종구, 1999)

산업 디자인에서는 장식성을 배제하고 기능성을 살린 단순한 디자인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건축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나타나 최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젊은 건축가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신미니멀리즘의 양상(김민수, 1999)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의 루이지 스노찌(Luigi Snozzi)의 건축물은 기하학적 변형을 요소로 한 것으로 미니멀리즘의 건축적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인테리어에 있어서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미니멀리즘 경향을 살펴보면 인공적인 것에서 자연적인 것으로, 화려함에서 간결함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그리고 풍요에서 의도된 빈곤으로, 어딘지 모르게 동양적인 느낌을 강하게 담고 있는데, 한때 단순한 신비주의에 휩싸여 나타났던 오리엔탈리즘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동양의 선(禪) 철학을 접점으로 미니멀리즘과 접목하여 사

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동양과 서양식을 결합시키고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미니멀리즘이 젠 스타일로 나타난 것으로 이것은 1990년대 전세계 유행의 가장 큰 흐름이었던 서양의 미니멀리즘이 동양의 불교 정신과 결합한 형태이다.

이와 같이 미니멀리즘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90년대 내내 전세계의 디자인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흐름으로서 패션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서구의 복식사를 볼 때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이나 사조가 퇴조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양식이 창조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 이러한 양상이 깨지는데, 새로운 양식이 생기면서 이전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새로운 양식이 계속 첨부되어 결과적으로 다양한 양식으로 축적되어 남았다.

따라서 20세기는 다양성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여러 스타일의 혼재를 보여주는데, 그 중 60년대 서구 미술계를 지배했던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미니멀 스타일은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여러 다양한 스타일들과 혼합되어 재창조되면서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다.

60년대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 스타일은 미니멀리즘 회화의 특징인 단순성, 최소표현, 모노크롬 색채를 그대로 이어받아 장식이 없는 심플한 스타일로



<그림 1> 루이지 스노찌 「Diener House in Ronco」 스위스, 1988-1989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p.170)

나타났는데, 이는 영 패션 시대를 열었다.

70년대는 기성 세대에 대해 반항하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자 시도한 청년문화가 대두하였는데, 이는 종래의 예술개념을 거부하고 시각예술 본질로 환원하고자 한 미니멀리즘 회화가 추구한 정신과 서로 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당시 스포츠의 확산과 더불어 단순하고 기능성을 살린 스포츠 웨어에서 미니멀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80년대는 냉전체제 붕괴 이후 다극화 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커뮤니케이션적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경계를 허무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 저변에는 부분들의 관계보다 총체적 조적을 강조한 미니멀리즘의 미학이 추구한 사상이 깔려있다.

이처럼 70년대와 80년대는 미니멀리즘의 전성기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생활 저변에는 미니멀리즘 예술이 추구한 정신과 미학이 늘 흐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90년대에 들어와 여러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으며 유행이 되고 있는 미니멀리즘은 포스트모더니즘 조류와 맞물려 포스트 미니멀로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하다는 것을 초월하여 구조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된 것들로서 일반적인 틀과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문화와 장르가 공존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미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미니멀리즘이 절정을 이루는 이유는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기 때문인데(Financial News, 2000, 8. 25), 21세기를 맞이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미니멀리즘은 새롭고 신선한 감각으로 미래의 우리 삶을 예견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니멀리즘의 역사적 의미와 미술계에서 나타난 배경들을 살피고 60년대 패션에 미니멀리즘이 미친 영향과 1990년대 이후 새롭게 패션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니멀 경향의 패션을 살펴 사회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니멀리즘의 의미규정과 현대패션에서의 위상 등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미술관련 문헌과 복식사를 살피고 1990년대 이후 출간된 패션잡지를 분석하였다.

II. 미니멀리즘의 개념과 예술사적 의의

1. 미니멀리즘의 개념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말 주로 미국 뉴욕시¹⁾에서 시작된 시각예술과 음악분야의 운동으로 극도로 단순한 형태의 표현과 즉자적·객관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의 예술이념은 “단순함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Less is more)”라는 이론적 명제로 시작되는데, 이는 가장 단순한 형식의 예술이 가장 많은 진리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윤현섭, 1997).

미니멀리즘이란 명칭은 1937년 존 그래함이 ‘예술의 체계와 변증법’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추상화의 과정에서 회화의 궁극적이고 논리적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하여 극소화된 성분에까지 회화를 환원하는 것”이라고 미니멀리즘을 정의하였다.

한편 미니멀이라는 명칭을 미술에 적용한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리처드 볼하임(Richard Wolheim)으로, 1965년 그는 6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단순하고 장식적인 디테일이 없이 기하학적인 추상성만이 강조되는 엄격한 형식의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예술적 내용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작품의 경향에 대해 ‘미니멀 아트’라는 이름을 붙였다(Richard Wolheim, 1965).

이것은 극사실주의와 대비된 극단에 있는 조각의 형태로서 이들 작품은 지극히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들을 하나만 또는 반복적으로 배열한 것이데, 놀라운 정도의 착시효과나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시각적 현상을 연출하며 거대한 실내 또는 실외 조각에서부터 분리된 형태요소들을 배열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노버트 린튼, 2000). 이는 전달매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림과 조각이라는 전통적 범주를 파괴한 것처럼 보인다(알랭 봉팡, 1994).

제작과정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볼하임이 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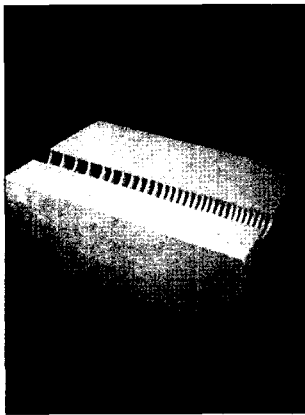
1) 1960년대 당시 뉴욕: 미국의 60년대는 전례없는 문화적 동요의 시기로 젊은이들의 반문화,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여성해방운동 등이 일어난 시기이다.

한 미니멀 아트와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는 매우 다양하다. 바바라 로즈는 '작품의 외형적인 단순성은 비본질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배제한 것으로 매우 종합적이고 사려깊은 결정을 통해 도달한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알파벳을 반복해놓은 무미건조한 반복의 의미로 'ABC 아트'라고 불렀다(Babara Rose, 1965).

그리고 대표적인 미니멀 아티스트이며 이론가였던 저드 역시 강력한 환원성, 단일성, 기념비적인 스타일 그리고 새로운 재료의 사용과 공업제품들을 수용한 미니멀 아트를 '특수 오브제'라고 명명하면서 <그림 2>의 사각형 평면의 한계를 넘어선 삼차원 작품을 제시하면서 그 실질적 효용에 관하여 역설하였다.

비평가 로렌스 알로웨이는 화면구조의 기하학적인 단순함과 반복을 특징으로 하는 작품경향에 대해 '체계적 회화(Systemetic Painting)'라고 하였는데(박은경, 1990), 이것은 화면 내에서의 부분들의 구성이나 관계보다는 총체적 조직인 비관계적 구성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서 비관계적이라 함은 대칭을 이루는 형태의 배치나 강조점이 없이 동등한 비중을 가지는 격자무늬 조직, 혹은 색상의 변화가 없는 단색화로서 형성되며 화면 내에서 부분들의 관계보다는 총체적 조직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Primary structure'²⁾라는 용어 역시 미니멀



<그림 2> 도널드 주드 「무제」, 1963(미니멀리즘, p.30)

성향을 나타내는데, 1966년 뉴욕 Jewish Museum에서 열린 <프라이머리 스트럭처展>에서 영국과 미국의 작가들 사이에 현저하게 나타났던 원형, 장방형, 입방체, 원통형, 각주 등의 기본적인 형태에 의한 작품에 대해 명명하듯 비롯된다.

그 밖에 미니멀리즘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Cool Art', '환원예술', '부정적 예술', '제3의 흐름', '후기 기하학적 구조' 등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니멀'이라는 의미가 일루전의 극소화, 형식의 단순화, 제작과정의 최소화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때 미니멀리스트들은 회화의 평면성, 기교성, 그리고 자기표현이 곧 예술이라고 하는 종래의 예술개념을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케네시 베이커, 1995).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전통적인 인습을 부정하고 시각 예술 본질에 환원하려는 시도는 모더니스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것으로 모더니스트 회화가 추구해 온 가장 큰 목표는 조형요소의 순수성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 회화에 있어서 그것은 형태의 순수성과 색채의 자율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체 자체의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순수주의적인 추상이지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모더니즘 미술의 자기환원적 성격은 미니멀리즘에서 정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2. 미니멀리즘의 예술사적 의의

다음으로 미니멀리즘의 전조가 되는 미술현상들을 살펴보면 미니멀 아트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유래한 것이며 순수형식을 추구한 모더니즘의 정점

2) Primary Structure : 1966년 뉴욕에서 개최된 동명의 전시회에서 따온 명칭으로 "조각"이란 말 대신에 '구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깎고 다듬는다는 의미의 종래의 조각 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공간 구성을 목표로 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구, 원추, 원주, 각주, 입방체, 등 그 형태가 지극히 간결하다는 점에서 미니멀 아트와 공통점이 있다.

(출처: 케네시 베이커·김수기 옮김, 미니멀리즘, 열화당, 1995, p.25)

에 미니멀리즘이 위치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미니멀 회화의 원천은 모네의 후기작품인 <건초더미> 또는 <성당>에서 하나의 주어진 회화적 주제의 변화를 탐색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일부 회화와 조각에서 절정을 이루는 즉 미술을 전적으로 자기진술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의 출발(에드워드 루시 스미드, 1992)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형예술의 본질을 직시하려는 모더니즘 미술의 환원적 시도는 세잔느가 형태가 가지는 양감과 구도, 채색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데서 보이며, 이는 미니멀리즘에서 볼 수 있는 존재론적 인식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뒤샹과 말레비치의 작품에서 미니멀리즘의 환원적 특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맥락을 찾을 수 있는데, 말레비치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것은 모두 회화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뒤샹은 '어떤 오브제라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여 후에 미니멀리즘을 낳게 한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미술사전, 1990)하였다.

1913년 캐시미르 말레비치는 「흰 바탕에 검은 사각형」이라는 작품을 통해 최초의 절대주의 구성을 이룩하였는데, 그는 예술작품에는 그 자체 외의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평면성을 강조하고 보는 사람의 직접적이고 순수한 시각적 반응을 위해서 회화적 접근보다는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형태와 선을 사용했다(Charles Jencks, 1995).

마르셀 뒤샹은 레디메이드인 변기를 작품으로 제시하여 최소한의 예술을 시도하였는데(박용숙, 1991), 그의 이러한 기성품 제시는 팝아트와 미니멀 아트에 영향을 주었다. 미니멀리즘과 팝아트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직접적 경험이 상호 연관된 주제(케네시 베이커, 1995)로 다루어지는데, 대중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작품화한 팝아트나 최소의 예술을 추구한 미니멀리스트의 목적은 서로 공통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중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직접적 참여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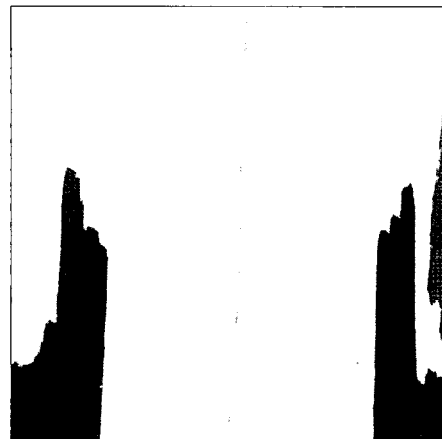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술의 중심지가 이동하였고 당시 화단을 살펴

보면, 형식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발전하는 색면과 회화와 후기 색채추상, 그리고 라인하르트의 엄격한 순수주의 회화에서 미니멀리즘으로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추상표현주의는 잭슨 폴록, 윌리엄 드 쿠닝으로 대표되는 정력적인 액션페인팅과 순수시각에 의존하여 회화의 기본요소를 문제삼고자 한 색면과 회화(박은경, 1990)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경향으로 전개된다.

이들 중 스틸, 로드코, 뉴만 등 색면과 화가들은 액션 페인팅이 가지는 감정적이며 자서전적인 특징을 거부하고 큼직한 단일색면에 의해 색채만을 중요시하는 뚜렷한 형식주의적 경향을 보였는데, 그들은 색, 선, 면 등 그림의 구성요소들을 순수하게 평면을 이루는 조건으로 환원하였다.

<그림 3>의 스틸의 작품을 보면 순수색의 대비를 통하여 색채의 가능성을 폭넓게 실현하고 있는데, 그의 그림에는 형상이나 부분이 더 이상 분할되어 있지 않으며 색띠, 색면, 그리고 색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스틸과 함께 색면과 회화의 중심작가로 활약한 로드코는 <그림 4>에서 그 자신 특유의 스테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색채를 통한 인간감정의 고양을 추구하며 외관상 넓은 색면에 의해 무한정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뉴만은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예술



<그림 3> 클리포드 스틸 「PH-897」, 1973(추상표현주의, p.69)

세계를 전개해 나간 화가로서 그의 작품에 사용된 기본적인 요소는 색채, 즉, 단일한 색채이다. 그는 텍스처를 완전히 배제한 넓은 색의 공간을 벽면에 밀착하여 새로운 유형의 거대한 평면을 창조했다.

이들 색면과 화가들의 작품이 미니멀 아트와 유사성을 가지는 것은 규모와 공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간과 대상과의 관계를 재건하고자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이 색면추상은 미국 추상회화의 제2세대라 할 수 있는 후기 회화적 추상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은 액션 페인팅의 행적에 의한 회화적 표현을 거부하고 동시에 색면과의 감정적 잠재성을 극복함으로써 철저하게 순수한 색 자체의 대비에 의해 명쾌하고 질서있는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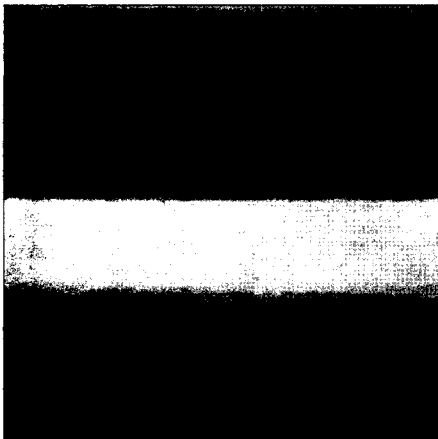
이 계열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놀랜드, 올릿츠키, 스텔라 등의 작품에서 보이는 후기 색채 추상의 특성은 명쾌한 색채,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 단위를 채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회화는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환원시킬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 미니멀 아트가 생겨나는 또 하나의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박은경, 1990). <그림 5>의 스텔라의 작품은 그림의 네 귀퉁이가 직각이 아니라 T자형을 이루는데, 그의 변형된 캔버스는 평면회화의 영역을 탈피하여 오브제로서의 회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낳았다.

후기 색채추상에는 속하지 않으나 순수화를 위해 모든 예술행위를 거부하고자 한 에드 라인하르트는 <그림 6>에서와 같이 색채의 풍부한 조화에서 점차 모노톤으로 이동했는데, 그는 그것을 '모든 방식에서 벗어난 진정한 무방식의 최초의 보편적 그림'이라 표현했으며, 예술작품의 목적은 순수한 오브제로서의 자율성을 획득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회화를 만듦으로써 미니멀리즘의 환원적 특성³⁾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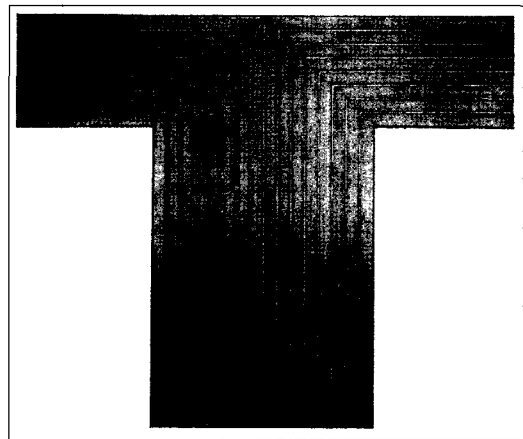
색면추상과 미니멀리즘으로 대변되는 60년대의 순수취향적 경향은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조류 속에서 공고해졌는데, 모더니즘의 핵심적 형태 다시 말해 그것의 도상 및 상징체는 미니멀리스트들이 즐겨 사용했던 격자모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축 분야에서도 빌딩의 모듈은 <그림 7>에서처럼 입방체를 띤다.

한편 미니멀리즘 회화양식이 등장한 60년대는 팝아트와 옵아트의 미술양식이 등장했으며, 이들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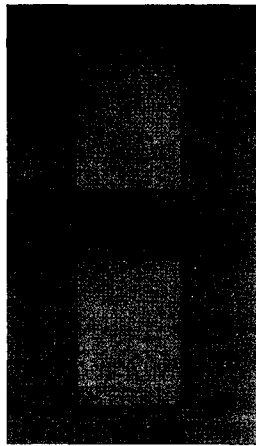
3) 환원과정이란 본래적인 것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뜻으로 이는 본질의 발견이며 의미의 발견과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잡하고 무의미한 형상에서 단순하고 의미있는 형상을 발견해 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 모노크롬한 색채, 심플한 형태, 가시적 외관이 단순하다는 미니멀리즘의 특성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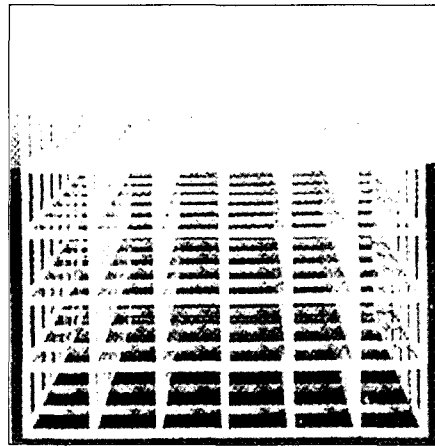
<그림 4> 마크로스코 「피랑위의 갈색, 피랑갈색」, 1953
(추상표현주의, p. 85)



<그림 5> 프랭크 스텔라 「텔루드 회합물」, 1960-1961
(미니멀리즘, p. 50)



〈그림 6〉 에드 라인하르트 「추상적 회화」, 1959
(20세기의 미술, p.269)



〈그림 7〉 솔 르윗 「열린 모듈 임방제」, 1966
(미니멀리즘, p.20)

미니멀리즘과 어느 정도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팝아트 작가들은 일상적인 오브제나 이미지들, 그리고 기계적인 기법을 채택하여 독창성과 유일성을 내용으로 한 전통적인 예술개념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보드리야르는 그들의 작업을 '근본적으로 미술을 신성화해가는 과정을 조정적으로 구체화하여 보여주려는 것' 이라고 지적하였다(오진경, 1997). 팝아트의 이러한 사물의 리얼리티 추구 경향은 미니멀리즘에서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한 환원적인 특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팝아트의 배경에는 미니멀리즘의 시각이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평면적인 화면에 입체적인 깊이의 감각을 착시적 효과를 이용하여 표현한 옵아트의 작품들은 간결하고 정밀한 표현을 뚜렷하게 나타내면서 예술의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였는데, 이것은 미니멀리즘 회화에서 보여지는 모노크롬한 색상과 단순한 오브제의 반복 등의 특징이 옵아트 회화에도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미니멀리즘은 60년대 여러 예술양식에서 그 미학적 특징을 일부분 공유하며, 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기를 기점으로 다소 세력이 감소하지만 90년대 이후 새롭게 재구성되어 포스트 미니멀리즘으로 전성기를 맞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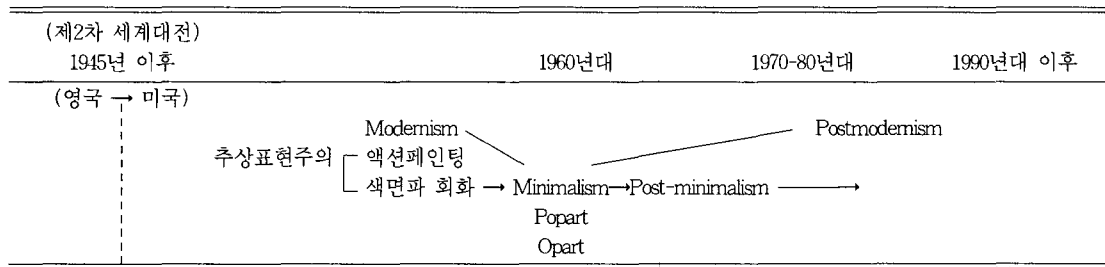
고 있다.

포스트 미니멀리즘(Post-Minimalism)(Robert Rauschenberg, 1977)은 미니멀리즘을 계승했으나 그 미학에는 반대했던 1960년대 후반 미국미술의 새로운 동향으로서 개념미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험을 지향하는 방법에서부터 순수하게 지적인 행동 예술로 나아가는 경향까지 포괄하기 위해 미국의 미술평론가 핀커스 위텐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그는 보다 장식적이고 회화적인 접근방식을 포스트미니멀리즘이라 명명하였으며 이것은 90년대 들어 새롭게 대두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분법적 사고의 붕괴, 다원주의, 절충주의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과 관련되어지면서 60년대의 미니멀리즘과 차이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고찰에서 나타난 미니멀리즘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을 본질로 환원시키고자 한 미니멀리즘의 시도는 제작과정의 단순화를 추구함으로써 예술의 새로운 형태와 재료들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회화나 조각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회화예술 영역의 확대 및 예술개념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리고 미니멀리즘이 모더니즘 미술의 정점을 이룬 경향이었던 것에서 미술사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미니멀리즘을

〈표 1〉 미니멀리즘의 예술사적 위치와 관계



기점으로 하여 모더니즘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의 이행을 볼 수 있다(박은경, 1990). 즉 미니멀리즘은 한 시대의 정점을 이룬 미술로서 현대미술의 새로운 발전에 구축적이기도 역동적인 기반이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표 1〉은 미니멀리즘의 예술사적 위치와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1. 1960년대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1960년대 들어 급속도로 발달한 현대산업과 함께 성장한 대중들은 사회전반적으로 사회학적이고 문화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예술계가 상층 계급의 전유물이었던 것과 달리 새로이 부상한 대중 소비주체를 위한 새로운 예술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팝아트, 옵아트, 미니멀리즘은 당시의 대표적인 예술양식으로서 특히 미니멀리즘은 60년대의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미니멀리즘이 등장했던 1960년대를 살펴보면, 당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권위와 기성가치가 도전을 받으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시기로서, 마틴 루터 킹목사의 흑인인권운동으로 인해 흑인세력이 부상하였으며, 페미니즘의 등장으로 여성해방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는 패션에 있어서 아프로 헤어스타일 등 아프리카 붐을 불러일으켰고,

남녀 성의 구분없이 함께 입을 수 있는 유니섹스 룩을 등장시켰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운동은 히피 룩을 등장시켰으며 비틀즈의 등장은 젊은이의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정홍숙, 1997).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패션은 장식성이 거의 없는 심플한 스타일로서 이는 제작과정의 단순화를 가져와 기성복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스타일의 여성복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전 시대에 비해 장식성이 많이 제거되어 간소한 복장의 활동적인 스타일로 나타났고 이는 미니멀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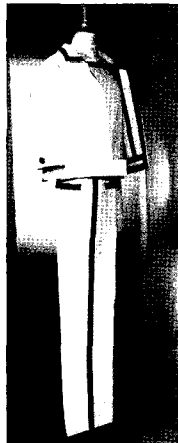
대표적인 미니멀 스타일의 패션은 1965년에 Mary Quant가 발표한 미니스커트로서 이것은 최소표현주의라는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패션으로 길이와 사이즈에 있어서 최소화 표현과 장식성을 배제한 심플함을 토대로 당시의 패션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영 패션 시대를 열었다.

〈그림 8〉은 1960년대의 이상적인 미의 모델로 칭송받았던 Twiggy의 모습으로 그녀가 입고 입는 미니 길이의 원피스의 가장자리를 장식한 굵은 트리밍은 미니멀 회화에서 보이는 선에 의한 명료함을 보여준다.

60년대 패션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젊은이를 중심으로 액티브한 감각의 패션을 들 수 있다. 보수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문화는 의복에서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경향을 띠었으며 이는 단순하게 커팅된 직선라인을 등장시켰는데, 이는 의



〈그림 8〉 미니스커트를 입은 Twiggy, 1967 (NEW YORK FASHION, p.210)



〈그림 9〉 Andre Courreges, 1965 (STJERNER I FRANKSK MODE, p.46)



〈그림 10〉 읍아트를 배경으로 한 1960년대 패션 (NEW YORK FASHION, p.206)

복의 기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림 9〉의 Andre Courreges의 작품은 스트라이프를 주제로 한 스포티한 의상으로 이것 역시 미니멀의 영향이다.

한편 팝아트는 전후 미국에서 시작된 미니멀리즘과 함께 60년대 반문화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회화로 표현되었던 팝아트가 뒤틀리고 통속적이며 화려하고 냉소적이었던 삼차원 미술의 형식을 취하는 미니멀리즘은 냉정하고 철학적으로 엄격한 특성을 지닌다(케네시 베이커, 1995). 이 두 양식은 모더니즘이라는 동일한 원류에서 시작하되 형상화된 결과물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팝아트에서 사물의 리얼리티 추구 경향은 미니멀리즘에서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한 환원적인 특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팝아트의 배경에는 미니멀리즘의 시각이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당시 성행했던 읍아트는 기하학적 무늬의 반복을 통해 보는 사람의 눈에 착시를 일으키는 효과를 이용(패션 디자인 발상 트레이닝 5, 1995)한 것으로, 이 역시 미니멀리즘 회화에서 보여지는 모노크롬한 색상과 단순한 오브제의 반복이라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이러한 팝아트와 읍아트는 의복과 그것이 전시되는 방법 모두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림 10〉은 1960

년대 Saks 5번가의 쇼윈도우에 전시된 것으로 읍아트 경향의 회화를 뒷배경으로 하여 박시재킷을 입혀놓은 마네킨이 서 있다(Milbank, 1989).

이처럼 1960년대의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적 요소는 앙드레 쿠레쥬나 마리퀸트의 미니스커트에서 크게 반영(변지연·이순홍, 1996)되어 있으며, 당시 함께 등장한 팝아트와 읍아트 등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Pierre Carden은 〈그림 11〉의 직선적인 실루엣과 기하학적인 구조의 모던한 감각이 느껴지는 우주복을 선보였는데, 당시 아폴로 우주선의 달착륙에 따른 사회의 우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역시 미니멀 조각에서 보이는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조의 삼차원 공간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깊다.

1960년대 이후, 패션에서 사용된 소재는 지금까지 의복의 소재로 사용되지 않던 유리, 금속 등의 이용되는 등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이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대중의 기호를 반영하는 것으로 젊은이들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모험의 정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특히 우주에 대한 관심으로 금속적인 광택을 살린 차가운 느낌의 소재가 각광을 받았으며 Paco Rabanne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소재를 의복 소재로 도입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



〈그림 11〉 Pierre Carden, 1968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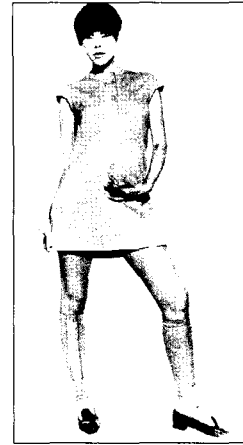
데, 그의 이러한 시도는 미니멀 화가들이 예술의 개념과 영역을 확대한데서 볼 수 있듯이 소재의 한계를 실험하고 전통적인 의복소재에 대한 관념을 무너뜨린 결과를 가져왔다.

아방가르드한 디자이너 Rudi Gernreich는 1968년에 〈그림 12〉에서 보듯이 핑크색의 원피스에 투명한 비닐 스트라이프를 넣은 디자인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단순한 구조의 원피스 스타일은 값싼 비닐을 간단한 봉제를 거쳐 제작한 것으로 이것은 미니멀리즘에서 추구하는 제작기법의 최소화와도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60년대 당시 영화의 우상이었던 오드리 헵번이 즐겨입은 장식성을 배제한 심플한 스타일과,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재클린 여사의 의복에서 보여지는 슬리브리스의 심플한 원피스 역시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팝아트나 옵아트, 미니멀리즘 등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미술이 젊은 층에서 팝 스타일, 기하학적인 무늬로 특수한 시각효과를 노린 옵아트 패션, 그리고 장식성을 배제하고 기능성과 실용성을 살린 미니멀 경향의 직선적이며 심플한 스타일 등 진보적이고 모던한 분위기로 60년대 패션을 주도하였다.

즉, 팝아트와 옵아트 경향의 패션 모두 미니멀리



〈그림 12〉 Rudi Gernreich, 1968 (NEW YORK FASHION, p.223)

즘의 미학과 정신을 저변에 깔고 있는데, 미니멀리즘 복식은 기존의 의복 소재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제작과정의 최소화를 통해 단순한 스타일로서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미래적인 디자인 감각으로 당시의 패션을 특징지었다.

2.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1960년대는 개인적 생활과 집단적 생활, 남자와 여자,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 허용될 수 있는 것과 금지된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관습과 창안, 미술과 비미술 사이의 경계들이 모호(케네시 베이커, 1995)해진 시기로, 이는 이분법적 사고의 붕괴, 다원주의, 절충주의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과도 관련되어 1990년대 이후 포스트 미니멀(Post-Minimal)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Fashion Today, 94, 7).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패션은 단지 단순하다는 것을 초월하여 구조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된 것들로서 일반적인 틀과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문화와 장르가 공존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콜로지 감각이 가미된 내추럴 미니멀, 에스닉 감각이 어우러진 오리엔탈 미니멀, 이것은 특히 젠 스타일이라고도 표현되어진다. 그리고 테크노시즘과 맞

물려 고감도 디지털 미학이 가미된 하이테크 미니멀 등 이전의 극소주의와 모노크롬한 색채, 장식성을 배제한 직선적인 스타일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와 장르가 융합되어 포스트 미니멀 감각을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6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미니멀리즘이 90년대 이후 새롭게 조명을 받으며 여러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70년대와 80년대에도 미니멀리즘이 주도적인 경향은 아니었을지라도 여전히 패션계의 저변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며 흐르고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70년대의 청년문화는 종래의 예술 개념을 거부하고 시각예술 본질로 환원하고자 한 미니멀리즘 회화가 추구한 정신과 서로 통하며, 당시 스포츠의 확산과 더불어 유행한 스포츠 웨어에서 보이는 기능적이고 단순한 스타일의 디자인에서 미니멀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80년대는 다극화 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커뮤니케이션적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다원주의 경향과 함께 보더리스 경향의 패션이 나타났는데, 그 저변에는 부분보다 총체적 조적을 강조한 미니멀리즘의 미학이 추구한 사상이 깔려있다.

이와 같이 70년대와 80년대는 미니멀리즘이 전성기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생활 저변에는 미니멀리즘 예술이 추구한 정신과 미학이 늘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CNN(1998. 12. 23)은 90년대는 미니멀리즘의 시대였다고 논평하기도 했는데, 90년대의 미니멀리즘 경향의 패션은 60년대의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반영하듯이 모던함과 단순함을 추구하는 스타일들이 보이고 있다. 비록 60년대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본질을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 60년대의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니멀리즘이라는 미술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패션에서 60년대의 미니멀 스타일의 영향을 보면, 먼저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오드리 헵번의 헵번 룩과 재클린 여사의 패션에 영향을 받은 재키 룩에서 보여지는 슬리브리스의 심플한 원피스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미니멀리즘의 전형으로서 장식없이 절제된 라인의 코팅을 이용한 디자인, 최소한의 디테일로 신선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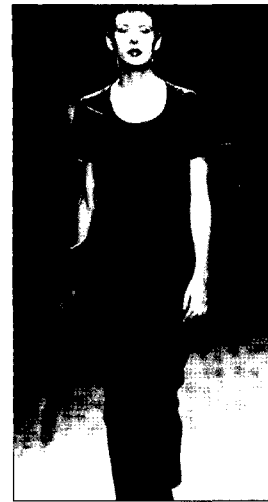
95-96 A/W에서 Helmut Lang이 발표한 <그림 13>의 디자인은 미니멀적인 모노크롬한 색상에 소재 자체의 이중겹침으로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것



<그림 13> Helmut Lang, 95-96 A/W (COLLECTIONS II, p.117)



<그림 14> Sonja Nuttal, 95-96A/W (COLLECTIONS II, p.75)



<그림 15> Junya Watanabe, 96A/W (Collezioni N.53, p.97)

은 대상자체의 의미를 중요시하는 미니멀리즘의 예술관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아무런 과장이 없는 단순한 구조의 미니멀 스타일은 주로 슬리브리스의 드레스가 많으며 모노톤으로서 백시나 무릎길이 또 는 미니의 여러 다양한 길이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4〉의 Sonja Nuttall 이 발표한 작품은 검은 색과 노란 색의 극명한 명도대비가 미니멀리즘 화가의 색면회화에서 보이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경향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림 15〉의 Junya Watanabe의 작품은 위아래를 흑색의 모노톤으로 통일시켜 색면과 화가들이 추구한 평면 단색화의 느낌을 주며 아무런 디테일이나 장식도 없는 단순한 구조를 취함으로써 남녀성을 구분하지 않는 듀얼리즘 이미지를 보여준다. 남성 또는 여성이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의 옷 안에 양성이 공존하는 것, 즉 성의 혼재화를 드러내고 있는 현대 패션의 듀얼리즘적인 경향 역시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대상 자체로의 환원성을 추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벽을 넘어 인간의 본질을 중요시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내면적인 바람이 이러한 패션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 16〉의 Lo & Cabon 역시 다아트가 거의 없는 단순한 구성의 슬리브리스 드레스를 발표하였는데, 장식이 거의 없는 자연스러운 소재와 분위기는 미니멀의 최소표현을 잘 나타내주는데, 이는 내추럴 미니멀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다.

Martin Margiolo의 〈그림 17〉의 작품은 단순한 스타일의 롱 드레스를 걸치고 얼굴을 가린 모습이 인간 개개인의 개성보다 조직체의 한 부속품으로 몰개성화되어 가는 현대인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상실해버린 버린 자아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Comme des Carcons이 발표한 미니멀적인 단순한 스타일의 〈그림 18〉은 몸통과 소매형태의 비구축적인 형이 포스트모더니즘이 표방하는 해체주의를 상징한다. 〈그림 19〉의 Alexander Macqueen의 작품은 광택있는 소재와 가슴에 있는 비대칭적인 슬릿이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이것은 미니멀리즘이 테크노 이미지와 결합한 것을 보여준다.

John Rocha의 작품 〈그림 20〉 역시 광택있는 첨단 소재를 이용하여 미래적인 테크노의 이미지를 띠며 동일 색상톤의 단순한 색채와 중심라인의 선은 미니멀 회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스타일



〈그림 16〉 Lo & Cabon, 96A/W
(Collezioni \.53, p.374)



〈그림 17〉 Martin Margiolo, 95-96A/W
(COLLECTIONS II, p.75)



〈그림 18〉 Comme des Carcons, 95-96
A/W(COLLECTIONS II, p.61)



〈그림 19〉 Alexander MacQueen, 95-96A/W (COLLECTIONS II, p.338)



〈그림 20〉 John Rocha, 96A/W (COLLEZIONI, N.53, p.190)



〈그림 21〉 Courreges, 95-96A/W (COLLECTIONS II, p.75)

은 현재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테크노 패션 등과 결합되어 고감도의 하이테크 미니멀의 경향을 띤다. 고급스러운 소재, 동색계열의 미묘한 색감차를 이용한 다양성, 두 가지 이상 소재의 겹침에서 보여지는 조화 등 60년대 보다 더 다양하고 미래적인 경향을 선보이는데, 미래 지향적이고 모던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광택 소재, 인체 부부가 비치는 비닐 소재와 특이한 소재 등이 주로 사용되어진다.

한편 〈그림 21〉의 Courreges가 발표한 디자인은 우주복을 연상시키는데, 흑백의 극명한 선의 대비와 반복은 미니멀 회화에서 보여지는 단순반복성과 상통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미니멀적인 경향은 단추가 거의 없는 평범한 튜닉형의 단순한 스타일과 모노톤을 이용한 과장됨이 없는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늬에 있어서는 기하학적인 추상형태가 단순반복적으로 나열된 것이 많다.

Hussein Chalayan이 99/00 콜렉션에서 발표한 〈그림 22〉의 미래적인 이미지의 디자인은 이제까지 의복 구조에 대한 관념을 깨뜨린 아방가르드한 스타

일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하여 포스트 미니멀 경향을 나타낸다.

이처럼 현대 패션의 미니멀리즘은 다른 여러 주요 패션테마들과 맞물려 현대의 다원화된 경향 속에서 복합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그림 23〉의 앞트임이 깊게 파여져 있는 디자인은 동양의 여백의 미학을 바탕으로 자연과 일치된 새로운 모더니티를 구축하고 있는 쟈(禪) 스타일로서 이것은 선(禪) 철학이 미니멀리즘과 결합되어 쟈(zen, 불교의 선(禪))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서양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양'은 절제미와 극도의 단순성을 띠며 세련되게 나타나는데, 즉 동양식과 서양식을 결합시키고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미니멀리즘으로 나타난 쟈 스타일의 디자인 모티브는 동양적이고 자연적인 소재에서 주로 영감을 얻으며 색상 또한 인공적인 색이 아닌 자연적인 색감이 주류를 이룬다. '젠'과 '미니멀리즘'은 같은 줄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일체의 장식을 없애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것은 같지만 쟈 스타일은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



<그림 22> Hussein Chalayan, 99-00A/W
(Gap Collections, Vol. 20 p.146)



<그림 23> Loewe, 99S/S
(Gap Collections, Vol. 18 p.59)

지고 있다.
복잡한 기계성, 상업성을 벗어나 명성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젠 스타일은 20세기 말부터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스타일의 근간이 될 것이다.

<표 2> 1960년대와 1990년대 이후의 미니멀리즘 예술양식과 복식의 비교

구분	시기	1960's	1990's ~	비고					
사회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문화의 급속한 발달—재키룩, 헵번룩 · 과학혁명시대—우주복 유행 · 젊은이들의 반문화(히피, 펑크 등) — 영 패션 시대 · 흑인세력 부상—아프로 스타일 · 여성해방운동—유니섹스 룩 · 락 스타의 부상 —모즈 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 · 성적체감 혼란 · 가치관 혼란 	패러다임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회화—몬드리안 룩 · 미니멀리즘—미니스커트, 꾸레쥬 룩 등 · 팝 아트 · 옹 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모더니즘 · 해체주의 · 페미니즘 	여러 양식 혼재					
미니멀리즘 특성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화의 한계 붕괴 · 제작과정의 최소화 · 본질로 환원시키는 데 역점 · 가공되지 않은 소재—레디메이드 · 모노크롬 화면 · 직선적인 감각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제기법의 최소화 · 동색톤의 코디네이션 · 무지 또는 단순 반복의 기하학적 무늬 · 신소재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장르, 다원화 · 최소 표현기법 · 본질 추구 · 가공되지 않은 소재—레디메이드 · 직선과 곡선 혼재 	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제기법의 최소화—장식 억제 · 단색 톤 · 무지 또는 단순반복의 기하학적 무늬 · 내츄럴 스타일 · 젠 스타일—오리엔탈 미니멀 · 하이테크 미니멀경향 	여러 스타일의 혼재
	상징의미	환원성, 단일성, 총체성, 추상성, 자율성, 순수성, 경제성			다원성, 절충성				

이상에서 보듯이 60년대 패션에 영향을 미친 미니멀리즘은 90년대 이후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부응하여 포스트모더니즘과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즉 현대패션에서 보여지는 미니멀리즘의 영향은 다른 유행테마들과 함께 결합하여 60년대와는 또 다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원주의와 절충주의의 특징을 지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포스트 미니멀 패션을 보여준다.

〈표 2〉는 미니멀리즘 예술양식과 패션을 1960년대와 1990년대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정리한 것이다.

IV. 결 론

현대인들은 점차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 생태계 파괴에 대한 위협 속에서 점차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게 되는데, 60년대에 나타나서 미술, 건축, 디자인, 음악 등 각 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미니멀리즘의 자기환원으로의 의지는 이러한 우리의 소망과 합쳐져 현대 패션계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60년대에 나타나서 당시 패션계에 영향을 준 미니멀리즘은 단순한 스타일의 미니스커트나 유니섹스 룩 등을 유행시켰으며 이것은 90년대에 들어와 60년대와는 다소 다를지라도 여전히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단순한 스타일로 지속적으로 패션계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니멀리즘적인 스타일은 단지 단순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최소로 억제된 생략표현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철학과 미의식을 반영한다.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을 스타일, 색채, 문양, 소재, 액세서리 등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타일 면에서는 장식이 없는 심플하고 절제된 라인을 추구하고 있는데,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최소지향은 사이즈 면에서 몸에 꼭 맞게 하거나 더 이상의 세부장식이 없는 단순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무릎길이의 슬리이브리스 원피스, 포켓이나

칼라가 없는 단순한 스타일, 좁은 어깨 등이 예에 속한다.

색채면에서는 미니멀리즘이 추구하고 있는 단색화의 명료함이 패션에서는 위아래 동색의 단일 코디네이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일톤의 바리에이션으로 역시 단순함을 추구하고 있다.

문양은 무늬가 없는 직물을 사용하여 기하학적 디자인, 단순한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특히 단순하고 간결한 선이 살아나는 패턴이 중요해졌으며, 반복적인 무늬라든가 추상화된 모티브와 같은 최소표현을 지향하고 있어 체크나, 스트라이프와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보인다.

소재면에서는 하이테크의 광택있는 코팅소재를 이용한 것이 많으며 이는 미래적인 이미지를 띠고 있다. 고급스러운 소재, 동색계열의 미묘한 색감차를 이용한 다양성, 두 가지 이상 소재의 겹침에서 보여지는 조화를 추구하고 비닐 소재와 기능성 소재, 그리고 면이나 모 니트류 등의 소재에서도 여전히 미니멀적인 단순함이 나타나고 있다.

장식이나 액세서리를 가급적 피하여, 성숙하면서도 자유로운 이미지를 주는데, Betsy Johnson, Giorgio Armani, Calvin Klein, Halmute Lang, Azzadine Alaia, Prada, Bet Zoly 등은 미니멀리즘 패션을 주도한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그들은 60년대의 영 패션을 재해석하여 보다 성숙한 여성상으로 부각시켰다.

이처럼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형식적 순수주의와 미니멀 아트로 나타난 단순성, 명료성, 물체성 등의 외형적 특징, 그리고 작가의 주관을 배제하고 사물 그 자체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니멀 아티스트들이 추구한 제작의 극소화 의지 등의 저변에 공통적으로 자리한 환원적 특성 등이 패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점차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본연의 모습을 추구하고 함몰되어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예술가들과 패션 디자이너의 노력은 인간 그 자체의 가치에 눈을 돌리게 했으며 내면의 사고와 정신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여러 패션테마들은

결국 이러한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서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저변에는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환원성이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미적 경험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미니멀리스트의 열망은 현대의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 사고와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관계적인 사회에 대한 거부와 그것의 실험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의 경제성을 추구한다고 말할 칼 안드레의 말처럼 미니멀 패션은 간결한 스타일 라인과 장식의 최소화를 통해 패션에서의 경제성을 구현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것을 본질에 환원시켜 보고자 한 미니멀리즘의 미학은 의복의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앞으로의 패션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

■ 참고문헌

- 가재창(1995). 패션 디자인 발상 트레이닝 5. 도서출판 정은.
- 김민수(1999).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솔.
- 노버트 린튼/윤난지 옮김(2000). 20세기의 미술. 도서출판 예경.
- 미술사전(1990). 신도출판사.
- 박용숙(1991). 현대미술의 반성적 이해. 집문당.
- 박은경(1990). 현대미술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의 환원적 특성과 그 위상.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변지연, 이순홍(1996). 미니멀리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3).
- 서성록(1989). 포스트모던 미술과 비평. 미술공론사.
- 알랭 봉팡/김은정 옮김(1994). 추상미술. 한길크세주.
- 에드워드 루시 스미드/시각과 언어 편집부 역(1992). 모더니즘 이후의 미술. 시각과 언어.
- 오진경(1997. 1). 팝아트. 월간미술, 156-163.
- 윤현섭(1997). 추상미술과 지의 자아. 인간사랑.
- 이종구(1999). 20세기 시대정신과 현대음악.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홍숙(1997).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 찰스 젠크스/청람번역팀(1995). What is Post Modernism?. 도서출판 청람.
- 찰스 해리슨/이영철 옮김(1994). 열화당.
- 케네시 베이커/김수기 옮김(1995). 미니멀리즘. 열화당.
- Babara Rose (1965). 'ABC Art', Art in American, October-November, reprinted in Minimal Art: A Critical Anthology
- François Boucher (1997).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Thames & Hudson.
- Kunstindustrimuseet · København (1988). *Stjerner I Fransk Mode, Denmark : Fløistrup & Baden*
- Milbank (1989). *New York Fashion*. New York: Abrams.
- Richard Wolheim (January 1965). *Minimal Art*. Art Magazine.
- Robert Pincus-Witten (1977). *Postminimalism*. New York: Out of London.